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7호 [루게 제24905호] 주체104(2015)년 5월 7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통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통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3년 6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새로 개발제작한 기계제품들의 구조, 작용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으며 그 성능을 더욱 높이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공장에서 만든 기계 제품들을 여러차례나 보아주시며 우리 식의 최첨단기계제품으로 훌륭히 완성하도록 힘과 지혜를 안겨주시고

오늘은 또다시 자기들의 일리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으로 하여 공장로동계급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개건한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을 교양거점답게 정중성과 직관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도 환하게 잘 꾸리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에 어려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공장의 발전력사는 곧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의 력사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도 최근년간 우리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이 크게 도약했다는것이 알린다고 거듭 만족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여러 부문들에서 더 많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것과 함께 빠른 시일안에 새 제품개발 사업을 완전무결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그러자면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보급실을 뚫어지게 꾸려놓고 공장로동계급이 선진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을 보시였다.

넣음으로써 공장로동계급이 뜻깊은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를 안고 당정책결사관철의 한길만을 걸어온 힘있는 공장, 전통있는 공장의 영예를 대를 이어 꽃듯이 이어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떠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통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의 성능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하루빨리 본격적인 계열생산에 들어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공직

장, 조립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로동계급이 기계제작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집단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그 생활력을 최대한 발양시키기 위하여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보링반, 후

라이스반, 타닝반, 수직열처리로를 비롯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기계설비들의 성능과 생산능률, 제품가공의 정밀도를 높인것은 자랑할만한 일이라고 하시였다.

통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은 넓은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작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전국의 본보기, 모범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단위들에서도 이 공장의 경험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최첨단기계제품들을 참관제작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새로 제작한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이 정말 멋있다고, 이것만 놓고보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적품모를 보여주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하시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힘이 난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기동 예술선동대의 공연은 쇠소리가 쟁쟁 나는 힘있는 정치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매 종목들에 당정책이 정확히 반영되고 공장에가 차넘치며 공장로동계급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성격이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니 기쁨 떠나 어려울 때나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이곳 로동계급의 고결한 충정의

마음을 잘 알수 있다고, 이런 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 당은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래일도 굳건할것이며 승리만을 떨칠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안에 차넘치는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더욱 세차게 폭발시킨다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로동계급이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장에 찾아오시어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

며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당중앙이 제시한 투쟁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고야말 충정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자

## 군민결의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선군청년1호, 2호발전소건설을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당장건 일흔년까지 무조건 끝낼데 대하여 주신 전투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군민결의대회가 6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혁명의 성지 백두대지를 더욱 빛내 이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랑스런 위훈을 떨쳐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상이 대회장에 차넘치고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결심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 등의 구호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두철동지와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부장, 건설에 참가한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인민군군인들, 청년동맹원들, 건설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백두산선군청년동맹대대장 김삼민, 조선인민군 정령 림판용,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지배인 심의환이 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명도의 자욱이 어려있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실 결심을 안으시고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사진행정형과 동맹원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건설에서 발휘된 청년들의 위훈을 값있게 평가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생산 및 수송문제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군인들을 발전소건설장으로 불러



주시고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동맹이 협동하여 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것을 바라는 크나큰 믿음과 기개가 담겨져있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반들고 역사적인 현지지도에서 제시된 과업을 빛나게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발전소건설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우리 땅을 옹위하는 제일결사대, 총폭탄이 쫓아내지 못할 무조건적인 투쟁정신으로, 당을 따라 끝까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전위의 기개를 남김없이 펼쳐

의지를 지니고 백두산칼바람에 뚫을 달고 백두대지에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본래, 땅을 따라 끝까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전위의 기개를 남김없이 펼쳐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동맹원들은 발전소건설을 전적으로 청년들에게 맡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신임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모든 대상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제기하여 무조건 끝낼것으로써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로서의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기수, 제일돌격대단결 일당백의 공격정신, 단숨에의 기상으로 불가능을 모르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지휘관들이 선전선동수단과 령을 총동원하여 대중의 정진력을 총폭발시켜 온 공사장이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번지게 하며 여기저기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새 기술, 새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발전소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가리리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노래를 더욱 힘차게 부르며 부닥치는 에로와 난관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맞받아 뚫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에국주의를 심장마다에 소중히 새겨안고 청년양표장들을 잘 꾸리고 관리하는것과 함께 수장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고 가꾸어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발전소건설에서 인민은 군대를 친혈육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군대는 인민을 위하는 원군, 원민의 미풍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진정한 전우, 동지관계로 끊임없이 승화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전구에 혁명의 붉은기를 펼쳐 휘날리며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돌까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기어이 완공함으로써 군민협동작전의 위력, 청년강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모내기준비를 힘있게 다그치자

##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벼모를 내는데서 중시해야 할 문제

###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진행된 전국농업부문 일군들을 위한 기술전습회에 참가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지도기관들은 농업전선의 담당자답게 농사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모내기철이 다가오고있는 속에 지난 6일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올해에 물이 부족한 조건에서 모내기와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농업기술대책문제제를 놓고 기술전습회가 진행되였다.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를 하기 위해 해마다 진행해온 기술전습회 때마다 우리가 이 농장에 도착하여 받은 첫 느낌은 올해에는 종전의 물을 깨고 새롭게 진행되고있다는것이였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의 사상적 각오와 열의가 비상히 높았다. 우리와 만난 일군들마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압록고지를 무조건 점령해야 할 임무가 자기들의 어깨에 지워져있고, 자기 도의 올해농사를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각오가 클수록 이번 기술전습회에 적극 참가하여 한가리라도 더 깊이 배워 도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솟구친다고 말하였다. 최북단 함경북도도 평안도, 자강도에서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사실을 놓고서도 우리는 일군들의 사상

적중비중도를 능히 짐작할수 있었다.

이번 기술전습회는 규모가 전례없이 컸다. 내각과 농업성 일군들, 각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 그리고 농산은 물론 관개, 농기계 등 관련부서들의 일군들까지 참가한 이런 규모의 기술전습회는 보기 드문것이라고 하였다. 형식이 다양할지 모르나, 농산은 물론 관개, 농기계 등 관련부서들의 일군들까지 참가한 이런 규모의 기술전습회는 보기 드문것이라고 하였다. 형식이 다양할지 모르나, 농산은 물론 관개, 농기계 등 관련부서들의 일군들까지 참가한 이런 규모의 기술전습회는 보기 드문것이라고 하였다.

기술전습회를 종전과 달리 조직화한 뒤 처음으로 우리들의 물음에 농업성 국장 주철규동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조해방과 당창건 일흔이 되는

맞는 경사로온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때문에 올해 모내기는 우리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중대사로운, 나라의 관心事로 되고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되는 최의의 자연조건에서 모내기를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더욱 중시해야 할 사업으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일군들을 만나보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각과 농업성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으로 받들기 위하여 물결약형농법을 도입하는 조건에 맞게 다양한 모종류별, 품종별, 포진별특성에 따르는 새로운 모내기방법을 현장에서 각종 농기계, 농기구를 가동시키면서 보여주는 동시에 기술적문제점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기술전습회를 종전과 달리 조직화한 뒤 처음으로 우리들의 물음에 농업성 국장 주철규동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조해방과 당창건 일흔이 되는

벼농사를 지어야 할 농촌들이 많았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런 현실을 천리해안의 예지로 내다보시고 현명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올해신년사에서 물결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질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압록평야를 넘쳐 넘쳐 수확할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많은 세멘트, 철강재, 목재 등을 농촌에 보내주어 온 나라가 몰락보전투로 들끓도록 하시였다.

내각과 농업성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으로 받들기 위하여 물결약형농법을 도입하는 조건에 맞게 다양한 모종류별, 품종별, 포진별특성에 따르는 새로운 모내기방법을 현장에서 각종 농기계, 농기구를 가동시키면서 보여주는 동시에 기술적문제점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기술전습회는 세가지 단계가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첫째로는 일군들이 모내기를 위한 조직사업을 잘 짜고드는 문제였다. 여기서의 당대 모내기에 전력투구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며 모든 일군들이

다 선전원, 선동원이 되어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선의 원바람을 일으키는 나가는 문제, 포진담당책임자가 실시된 조건에 맞게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농장원들과 타야소, 유지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노력문제를 해결할때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둘째로는 불리한 자연조건에서 모살이물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인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우선 모내기기를 출제 규정하는데서 경험에 매달리지 말고 세가지 문제 즉 품종별, 모종류별특성에 맞게 최적기와 모종류별적기인양, 모살 당시 기상 및 토양조건을 고려하여 모를 내야 최종수확을 높일수 있다는데 대하여 지적되었다. 특히 모내기적기는 모가 모판에서 자란 기일이 아니라 모종류별기준일수에 도달한 날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해당 지역의 평균기온이 13~15°C 될 때부터 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것을 인식시켜주었다. 다음으로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바로 정

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원리적으로 해설하였다. 셋째로는 모내기선행공정을 확고히 앞세워 모내기를 적기에 실시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불철에 가꾸는 조건에서 마른논씨매치기를 적극 받아들이야 토양수조가 적격파괴되고 비의 생육과 뿌리발육을 좋게 할뿐아니라 연수와 물소비량도 훨씬 줄일수 있으며 모판리에 힘을 넣어 영양단지도, 영양알모는 4.5~5일, 영양생상모는 4일, 큰모는 7~8일 될 때 모내기를 하여야 수확을 최대로 높일수 있다는것을 정확히 알도록 하였다. 물이 부족한 조건에서 토양수분이 보장되는 5월 상, 중순경에 모살이물을 높이기 위하여 3.5~4일 된 영양단지도를 일찍 밭수 있다는것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모내기현장에서 기술전습회에서는 처음 보는 모내기의 전후작업공정들이 진행되는데다가 새로운 농기계, 농기구를 작업하는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모두가 마른논씨매치와 이랑짓기, 두둑만들기, 여러가지

모내기방법을 받아들이는데 리용되는 농기계와 농기구들의 동작원리를 열심히 배웠다. 처음 보는 모내기방법이어서 농기계를 따라가며 작업과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세운으로 동작을 익혀보면서 자기 도의 실정에 맞게 조절 착상을 내놓고 논의에 열중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내기이후에 물을 댄 후 벼모를 심는 모판에 단지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른논씨매치와 동력 및 인력농기계를 농기구로 포기출을 판 다음 모를 내는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물을 포기마다 충분히 주어 모살이물을 높일수 있다는것과 평당 포기수는 종전의 기준포기수보다 10~20 포기 더 넣는 원칙에서 모를 내야 가뭄피해를 막을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모내기 후 물을 댄수 있는 조건인 경우 물결약형농법인 두둑재배, 이랑재배방법으로 모내기를 하는것도 보았다. 두둑재배는 마른논씨매치기를 한 다음 너비 1.5~2m의 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 25~30cm의 령간격으로 모

를 댄 후 두둑끝에 물을 대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배는 마른논씨매치 후 50~60cm의 이랑을 짓고 이랑마루 위에 20~25cm간격으로 두 줄로 모내기를 한 다음 고티에 물을 대주어야 한다는것도 알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물을 대고 모내기하는 경우 영양단지도, 이른 큰모, 원그루큰모, 뒤그루큰모, 영양알모 등을 내는 방법과 농기계를 구조작용원리를 배우면서 자기 도의 모든 농장들에 적극 도입할 계획을 토의하였다. 이밖에도 기술전습회에서는 모내기후 비배관리와 밭작물가꾸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기술적문제들에 대해서도 배워주었다.

끝으로 리철만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은 뜻깊은 올해의 압록평야산목표를 기어이 결명하는데서 우리 일군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창조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내기전투를 작전하고 지휘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모내기전투를 통하여 자기의 충실성과 실력을 검증받을수 있도록 평당 모내기의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에서 모든 일군들이 기수, 권위투사자 될것을 호소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술전습회를 통하여 올해의 불리한 자연조건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논농사는 물론농사라는 말이 현실에 맞지 않으며 농사를 천연일복으로 대하거나 경험주의에 사로잡혀 과학농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없다는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번 기술전습회는 농업부문 일군들을 사상정신적으로 각성시키고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할수 있는 과학농법들을 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배워준것으로 하여 올해농사의 돌파구를 여는데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우리는 그 실로가 모내기전투에서 크게 나타날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대명호



기술전습회에 참가한 전국농업부문 일군들



마른논에서 벼모를 심는 모내기



물을 댄 포전에서 벼모를 심는 모내기

## 담수식고랑물대기방법을 받아들여

### 황주군 구포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결약형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질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압록평야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결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황주군 구포협동농장 일군들은 영양단지도를 100%의 논면적에 받아들일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종전의 방법대로 하면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군들은 낮에는 농장포전들의 구조수직을 매우얇게 하면서 실농관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었고 밤이면 모여앉아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방도를 모색하였

다. 이 과정에 담수식고랑물대기방법이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고티에 일정한 기간 물을 채워 놓으면 논토양에 포화상태의 물기를 보장할수 있었다. 결국 종전보다 적은 량의 물을 가지고 모내기한 벼모의 뿌리활성을 높여 모살이 잘되게 할수 있었다. 지난 시기에는 수평으로 고른 한정비의 눈을 적시는데 하루가 걸렸으며 많은 량의 물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리용하면 고티를 따라 물을 대기때문에 적은 량을 가지고서도 모내기를 보장할수 있었다. 비록 많은 물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였지만 농장일군들은 문제점을 여기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포전의 생명수는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기어오 찾아야 한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담수식고랑물대기방법의 효과를 더욱 높일수 있는 방도를 찾았다. 서로

의 창조적지혜가 합쳐지는 속에 이들은 논에도 벼모판처럼 두둑을 지어주면 효과적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두둑사이에서 난 물을 따라 물대기를 할수 있었다. 또한 종전 모내기할때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모내기를 할수 있었다. 그리고 마른논씨매치기를 한 논들에 두둑을 지어주면 되기 때문에 품도 줄어 들지 않았다. 자재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많은 물을 절약할수 있는 이 방법은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은 농장일군들은 정지시작을 앞세우고 기술적으로 해결해준 문제점을 여기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모전의 생명수는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기어오 찾아야 한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담수식고랑물대기방법의 효과를 더욱 높일수 있는 방도를 찾았다. 서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 하야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것입니다.》

사리원시 봉의협동농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여 리용하고 있는 축류뿔뿔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농장에서는 이 뿔뿔로 재평강의 물을 퍼올려 씨뿌리기때부터 계속 리용하고있다.

이런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선 일군들은 매 작업반에 2대의 축류뿔뿔을 갖추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 나갔다.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스스로 달아지고 밭이 깊도록 뛰여다녔

## 물보장에 리용한 축류뿔뿔

### 사리원시 봉의협동농장에서

구조가 간단하고 첩관만 있으면 어디서나 쉽게 만들수 있는 이 뿔뿔은 모내시기의 원동력인 물을 리용해서도 얼마든지 돌릴수 있다. 또한 인의 장소에 설치할수 있기때문에 농장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이 뿔뿔은 물결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황주군 구포협동농장 일군들은 영양단지도를 100%의 논면적에 받아들일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종전의 방법대로 하면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었다.

이 뿔뿔은 물결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황주군 구포협동농장 일군들은 영양단지도를 100%의 논면적에 받아들일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종전의 방법대로 하면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었다.

이 뿔뿔은 물결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황주군 구포협동농장 일군들은 영양단지도를 100%의 논면적에 받아들일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종전의 방법대로 하면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었다.

이 뿔뿔은 물결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황주군 구포협동농장 일군들은 영양단지도를 100%의 논면적에 받아들일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종전의 방법대로 하면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었다.

이 뿔뿔은 물결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황주군 구포협동농장 일군들은 영양단지도를 100%의 논면적에 받아들일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종전의 방법대로 하면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었다.

## 제 17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 학과 학도론회 진행

###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벌일수 있는 방도들을 진지하게 협의

제17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 학과 학도론회가 5일과 6일 인민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로동회에는 김형준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보건부민원국 부위원장 등도 참가하였다. 김형준 부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는 제1회 동포학도론회대담, 박기범 부위원장은 제2회 동포학도론회대담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학과 학도론회 대담이 이날에 참가하였다. 김형준 부위원장은 회의를 하였다.

그는 해외동포학도들을 비롯한 전체 참가자들을 축하하면서 인민문화회관에서 우리 인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며 민족의 의과학을 최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의과학자들

## 전국 상업부문 일군 회의 진행

전국상업부문일군회의가 6일 안주시에서 진행되였다.

안주시 조진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내부, 전국의 상업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경남상업성의 보고에 이어 안주시상업관리소 소장 안준영, 개천시상업관리소 소장 김갑수, 청진시 수남구역상업관리소 소장 박환욱, 허천군상업관리소 소장 강중만, 회양군상업관리소 소장 채인철, 평안남도 매상업관리처 직물대소 지배인 권원만 등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이번 회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의도대로 상업부문에서 유류자재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여 자재로 여러가지 소비품들을 생산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제전군을 승리를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상업, 금업, 편인봉사활동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그 운영방법을 혁신하며 생육확보와 원자재보장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영건설의 위대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인민들에 대한 상업봉사활동을 개선강화해나가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실철이 있는 기초식품생산기지와 평양발달공장, 평양인민시식료품공장의 위대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인민들에 대한 상업봉사활동을 개선강화해나가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런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선 일군들은 매 작업반에 2대의 축류뿔뿔을 갖추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 나갔다.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스스로 달아지고 밭이 깊도록 뛰여다녔

이 뿔뿔은 물결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황주군 구포협동농장 일군들은 영양단지도를 100%의 논면적에 받아들일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종전의 방법대로 하면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었다.

이 뿔뿔은 물결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황주군 구포협동농장 일군들은 영양단지도를 100%의 논면적에 받아들일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종전의 방법대로 하면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었다.

부 단위들에서 사회주의공업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봉사활동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지 못한 결합들도 분석정리되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인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인민생활문제를 풀어 나갈때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여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인민의 총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1차소비품과 일용잡화상품, 간접상품 등 필수상품들을 더 많이 확보하여 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정연한 상품공급체계를 세우고 분개연선지역과 탄광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형부문, 기초공업부문 가정세대들에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우리 가정수첩」을 실속있게 리용하여 인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더 잘 해나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블스까대사관 성원들 평양 외국어 대학 참관

블스까국경절인 헌법절에 즈음하여 크리슈토프 체베 주조블스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6일 평양외국어대학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جلسه 위인들의 손길에 발걸음을 대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늘려가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 박건의 학생 국제청소년피아노연주가공클에서 1등 생취

우리 나라의 박건의학생이 로씨야의 짜리리주에서 진행된 제 20차 프라제국제청소년피아노연주가공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공클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카자흐스탄, 튀르키예에서 50여명의 청소년피아노연주가들이 참가하였다.

공클은 희망하는 예술교육기관 학생들과 교원들, 예술인들을 나열에 따라 3개의 부류로 나눈 1선, 2선, 3선에서 각각 승부를 겨루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피아노2부류에 속한 박건의 학생은 높은 기량을 요구하는 세계명품들을 세련되고 섬세하며 박력있는 연주로 손색없이 형상하여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30일에 진행된 시상식에서 1등상을 거두었다.

## 제 17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 학과 학도론회 진행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벌일수 있는 방도들을 진지하게 협의

제17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 학과 학도론회가 5일과 6일 인민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로동회에는 김형준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보건부민원국 부위원장 등도 참가하였다. 김형준 부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는 제1회 동포학도론회대담, 박기범 부위원장은 제2회 동포학도론회대담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학과 학도론회 대담이 이날에 참가하였다. 김형준 부위원장은 회의를 하였다.

그는 해외동포학도들을 비롯한 전체 참가자들을 축하하면서 인민문화회관에서 우리 인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며 민족의 의과학을 최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의과학자들

## 블스까대사관 성원들 평양 외국어 대학 참관

블스까국경절인 헌법절에 즈음하여 크리슈토프 체베 주조블스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6일 평양외국어대학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جلسه 위인들의 손길에 발걸음을 대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늘려가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박건의 학생이 로씨야의 짜리리주에서 진행된 제 20차 프라제국제청소년피아노연주가공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공클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카자흐스탄, 튀르키예에서 50여명의 청소년피아노연주가들이 참가하였다.



제 17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 학과 학도론회 진행







